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고려대장경연구소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 준비위 구성

“천 년 전 시작된 대장경 편찬 불사는 다가오는 천 년에도 계속된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법)가 4월 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을 개최하고 대장경 조성의 새로운 천 년을 준비한다.

2011년은 1011년 고려 초조대장경의 조성이 시작된 지 천 년이 되는 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천 년의 지혜를, 천 년의 미래로’라는 모토 아래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마련했다.

고려 초조대장경은 송나라 개보대장경 이후 세계 두 번째로 조성된 대장경. 하지만 그 존재가 알려져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7년부터다.

1만1000여 권에 달하는 초조대장경의 목판은 소실됐고, 인본(印本)이 일본 교토 남산사에 2000여권, 대마도에 600여 권, 우리나라에 300여 권 등 총 3000여 권이 남아 있다.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일본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와 연구협정을 체결하고 남산사 소장 초조대장경판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2011년까지 초조대장경의 디지털화와 연구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의의를 알리는 데도 앞장선다. 이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일본 하나조노대학과 공동으로 남산사 소장 초조대장경판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를 위해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과 루이스 팅카스터 교수(미국 버클리대) 등을 포함하는 문화·학계 전문가 100인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준비위원회는 4월 2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료집 발간, 홈페이지 구축, 학술회의와 정기 강연회 개최 등 고려대장경의 역사·문화사적 의의를 알리는데 나설 예정이다.

종법 스님은 “흔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세의 침입을 막으며 조성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고려대장경은 당시 사회의 문화·예술·지식

체계를 결집한 당대 아시아 지식사의 결정판”이라고 강조한다.

초조대장경 간행을 시작으로 교장(속장경),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으로 이어지는 대장경 간행의 역사는 단순한 ‘불경(佛經) 편찬’이 아닌 곧 우리나라 지식의 결집체라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오윤희 소장은 “초조대장경은 이번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라며 “서지학적 중요성 외에도 각필, 도장, 판화 등 문화사적으로도 ‘보물창고’라 할 만큼 학술적 가치가 풍부하다”고 설명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출·재가 함께하는 종단청정위원회 제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11개 단체...총무원장 면담 등 계획

조계종 사법제도 개혁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단청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성관·효림)와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 등 11개 단체는 3월 27일 조계사 소실법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자정기능 제고를 위한 (가)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수석 부의장 법안 스님은 “종단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기 보다는 인맥과 권력, 심지어 금력에 의해 좌우되기 돼 대중들로부터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며 “종단내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종단 안팎의 신뢰를 견인해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이를 퇴보시켜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종단의 공동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부

족이라고 판단, 청정위원회를 총무원장 직속 독립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김희옥 공동대표도 제안 설명을 통해 “종단청정법도, 종단투명성을 개선할 법과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종단청정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해 사법기능 회복 및 미래지향적 사법제도 수립,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종 문화적, 제도적 개선안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은 문준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종단의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종단청정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 실무자들은 빠르게 내주중으로 총무원장을 비롯한 간부급 스님들과 면담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태허 스님 38주기 추모제 12일 현충원서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의 독립정신과 불교사상을 기리는 38주기 추모제가 4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다.

운암기념사업회 민성진 사무국장

은 “태허 스님은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하시며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활발히 펼치셨다”며 “이번 추모제는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스님의 기일인 4월 12일에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낙태 부추긴 사회문화 ‘반성’

화계사 타태영가천도 49재 봉행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하기를 원한다. 자신에게 그러하듯 이 어찌를 만 생명에 적용할 것인 즉,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말라.”(법구경)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가 산아제한정책, 낙태선호사상, 미혼모에 대한 냉대 등 낙태를 부추긴 사회문화를 성찰하고 개인의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나도록 ‘타태영가천도를 위한 49재’를 시작했다.

이번 기도는 참회에서 발원으로, 발원에서 불살생 실천으로 우리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수행의 일환으로 봉행된다.

타태영가천도를 위한 49재는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49일 동안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의 릴레이 기도도 봉행된다. 기도입재는 제주 약천사 회주 해인 스님이 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한다. 회향일에는 보살계 수계식도 열린다. 전계사는 화계사 회주 설경, 교수사는 약천사 회주 해인, 갈마사는 前 통도사 주지 태응 스님.

수경 스님은 “타태영가 천도재를 시작하는 진정한 의미는 낙태가 필요 없는 마음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지금 우리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반생명 문화의 수행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49재의미를 설명했다.

남동우 기자

해인사-경북대 문화학술 교류

조사·연구 공동진행 등 협정체결

합천 해인사(주지 현응)와 경북대학교(총장 노동일)가 3월 27일 해인사 청화당에서 문화·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해인사가 외부 기관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이번 협정으로 불교문화 규명을 위한 연구 및 교육 분야 상호 협력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팔만대장경 경판 및 판전, 사간장경 등 해인사 소유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와 불교 사상, 불교 예술 등 불교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가 공동 진행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는 해인사 승가대학 교과과정 중 교양 및 외국어 분야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해인사는 불교학, 불교사상, 불교사 등 경북대학교 교양과정과 전공 과정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하게 된다.

해인사 기획국장 만우 스님은 “세계 전역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

한편 해인사 성보박물관(관장 분혜)은 4월 1일부터 목판특별전 ‘유일(唯一)’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고려 초조대장경 판본으로 추정되는 현존 가장 오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경북대 노동일 총장이 문화·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된 목판인 ‘화엄경 수장판’을 비롯해 ‘80화엄경 변상’ ‘대각국사 문집’ ‘불설수시왕경’ 등 국보 206호 진본(眞本)과, ‘역대왕조년표’ ‘불경심다라니’ 등 보물 734호 진본을 포함, 모두 36점이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이번 특별전과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통일신라 묘각상탑 은제사리병’도 불교공예실에 단독 전시된다. 불교조각실에서는 통일신라기 해인사 출토 소탑판(小塔片)도 최초 공개하는 ‘특별전 속의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프(http://homy.buddhapia.com/homepage/hawaii)를 개최한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4월 20일
2차= 5월 1일~5월 30일(참가비 5% 인상)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후원: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어학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한 하와이주립대 영어 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관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로샤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한인 이민의 땅 서던 사탕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묻힌 판치불 국립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 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라바라스, 와이메아공원.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010-6318-1976

꽃길 걸으며 상생·화합·평화 염원

‘날마다 좋은날’ 14일부터 전국서 걷기명상

“꽃길을 걸으며 화합과 평화 염원해 보세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은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국명상투어-꽃길 따라 걷기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걷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이웃과 사회, 인류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걷기명상’은 올해 ‘상생·화합·평화’를 주제로 전국에서 진행된다.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의 지도로

걷기명상을 배워보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빈 그릇 운동’을 직접 실천해본다. 이어 시민과 불자 가족이 함께 하는 나눔과 나눔마당도 열린다.

전국명상투어는 4월 14일 부산 동백섬 누리마루를 시작으로 15일 대전 남문광장, 21일 속초 영랑호, 29일 인천과 평화누리에서 열린다.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점심식사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한편, 5월 5일에는 평창 월정사주지 정녀와 공동으로 오대산에서 걷기명상을 개최한다.

묵언으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약 10km 거리를 걸으며 진행되는 이날 걷기명상에서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원하기 위해 전나무 숲길을 삼보일배하고 팔각구름석탑을 탑돌이 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장기기간 실천 서약과 주먹밥을 나누는 나눔마당, 선재농장에 꽃씨를 뿌리는 평화마당도 색다른 체험거리다. 불거리를 위해 인도 유물 유적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상원사 동종과 선원도 개방된다.(02)733-7277

남동우·여수령 기자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새로운 연등

마음의 빛으로 승화하시고 소원성취 하소서

차량 탑재 가능
1톤 트럭탑재시
길이3M 높이 3.5M
차량 자체전원으로 점등가능

소품형(가로등대용) - 각종행사시 연등걸이대로 사용가능

아치형-사찰입구 및 경내에 설치

등기구에 사용되는 모든 전구는 LED로써 필라멘트 전구보다 10%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므로 매우경제적임.

* 자세한 문의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E2LINC.COM)

이투엘아이엔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2가 10-1번지
제작및 납품문의: 02-2633-4955